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직업병 의심환자 발견시 1644-8595(안전보건공단) 1588-6497(근로자건강센터)로 신고바랍니다

직업병 의심환자 신고의 중요성

- 2015년 고열과 손발저림 등으로 집 근처 병원을 찾았던 노동자들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8개월이 지나서야 공장 철거 중 수은에 중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누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찾게 됩니다.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하고, 화학물질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관련기관에 신고 했더라면 신속하게 원인을 찾아 바로 치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과 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화학물질 중독과 질식 등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전화(1644-8595 / 1588-649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병

- 화학물질 취급자의 급성 중독, 독성간염
- 작업에 의해 악화되는 천식, 분진에 의한 간질성폐질환, 과민성폐장염
- 화학물질 노출자의 말초신경염, 홍반성질환(EM, SJS, TEN)
- 작업 중 발생한 접촉 피부염, 백반증

☞ 상기 질환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의 조치사항

- 1 환자분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일하실 때 화학물질을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 주십시오.
- 2 화학물질 사용 경험이 있는 노동자인 경우 1644-8595(안전보건공단) 또는 1588-6497(근로자건강센터)로 신고(환자상태,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작업내용 등)
※ 신고하신 병원(의사) 및 환자의 정보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직업병 관련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증상

- | | |
|-------------------------------------------------------------------------|--------------------------------------------|
| ①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클로로포름, HCFC-123 : 독성간염, 어지러움 등 중추신경증상 | ⑦ 포름알데히드 : 천식, 백혈병 |
| ②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홍반성질환(EM, SJS, TEN) | ⑧ 벤젠 : 백혈병, 빈혈 |
| ③ 메탄올 : 두통, 구토, 현기증, 시력 이상 | ⑨ 노말렉산 : 다발성 신경염 |
| ④ 납 : 빈혈, 말초신경염, 신장기능 이상 | ⑩ 브롬화메틸 : 중추신경증 |
| ⑤ 망간 : 파킨슨 증후군 | ⑪ 톨루엔, 스티렌 등 유기용제 : 두통, 구토, 현기증, 기억력 저하 등 |
| ⑥ TDI(톨루엔-2,4/2,6-다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등 감작물질 : 천식 | ⑫ 불산(불화수소) : 현기증, 구토, 기침, 홍반, 피부·눈에 화상 |
| | ⑬ 수은 : 피부질환, 손발저림, 불면증, 기억력 저하, 팔·다리 마비 증상 |

위에 예로 든 사례 이외의 화학물질이나 직업병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644-8595(안전보건공단) 또는 1588-6497(근로자건강센터)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의심 환자와 동료 노동자를 직업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